

# 설 앞인데...천덕꾸러기 된 '온누리상품권'

### 광주시 산하 도매시장·전통시장 가맹점 적어 거절 일부 시장 가맹률 50% 불과...안내판도 없어 시민들 혼란 이용객들 불만 속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취지 '무색'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든 '온누리상품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광주시 등 각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시 산하 도매시장은 물론 전통시장 내에서도 참여 점포수가 적어 상품권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인데, 정작 상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최소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업소와 받지 않는 업소를 구분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도 부착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광주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 따르면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1400여개 전통시장과 18만여개 상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광주지역 가맹점은 3000여 곳이다.

광주시나 통계청 등 대부분의 공공서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거절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광주시에 등록된 주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입 점포와 비율을 살펴보면 비야 5일시장 17곳(12%), 양동 닭전길 시장 61곳(41%), 우산매일시장 21곳

(48%), 산수시장 32곳(49%), 송정 5일시장 113곳(53%), 송정매일시장 51곳(60%), 대인시장 236곳(65%), 화정동 서부시장 53곳(68%)에 불과했다. 말바우 시장(474곳·92%)을 제외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가맹률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외관상 전통시장과 다를 바 없는 광주시 산하 광주시부농농산물도매시장과 각화농산물도매시장조차도 대부분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닌 만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곳에서도 일부 상인은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어 시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문예영(여·57)씨는 "설 차례상에 올릴 병어를 사기 위해 선물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가져갔지만 상인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상품권을 안된다며 카드나 현금사용을 요구했다"면서 "양동시장에서는 사용했는데 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근무하는 김모(40)씨도 "매년 10만~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에서 거절하는 곳이 많아 사용이 꺼려진다"면서 "상인과 이용자 모두 불편해 하는 상품권이라면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시장의 한 상인은 "사실 손님이 상품권의 액면가 60% 미만은 사용했을 때는 잔돈을 상품권으로 거슬러 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손님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또 한달에 1000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환전 받을 때는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아 가맹점 마다 등록 점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에서 모든 점포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물건을 사기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공포의 덫'이 된 '폐북 악연'

### 20대男, 애완 악어사진 올린 조폭 협박에 시달려

### 카드대출 등 받아 7000만원 뜯겨 잠적했지만 우연히 마주쳐 납치 목격자 신고로 2명 붙잡아

'악어가 잠 예쁘네요.'

지난해 가을 A(26)씨는 SNS '페이스북'에서 애완 악어사진을 발견했다. 평소 파충류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사진 게재자 B(30)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악어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B씨는 성의껏 답변해주며 A씨의 호감을 샀다.

며칠 뒤 A씨는 B씨로부터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썸 이자의 대출을 소개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직인이 없었던 A씨는 혹하는 마음에 B씨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A씨는 친구와 함께 B씨를 만나러 갔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걸렸다. A씨와 친구는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을 폭력조직 행동대원이라고 소개한 B씨의 협박에,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카드대출 등을 받아 7000만원을 뜯

긴 것이다.

계속되는 협박을 견디다 못한 A씨 등은 B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악연은 짙었다.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삼촌동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던 A씨가 우연히 B씨와 마주친 것이다.

B씨는 다른 조직원 C(28)씨와 함께 스포티지 차량에 A씨를 강제로 태운 뒤 1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왜 연락을 끊냐, 네 부모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당한 끔찍했던 일은 "깜짝같은 납치들이 시민을 납치해 갔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끝을 맺었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특수감금(납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유서를 가지고 다닐 것 같다"며 "A씨가 유서를 보여주며 자신을 폭력조직 행동대원이라고 소개한 B씨의 협박에, 최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카드대출 등을 받아 7000만원을 뜯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납품 대가 뒷돈 받은 콘진원 전 과장 구속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직 간부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콘텐트진흥원 전 과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콘텐트진흥원에 근무하던 2015~2017년 방송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D사 대표 손모씨에게서 뒷돈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산담당 공무원들이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몰아준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D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모씨가 부인 명의로 세운 업체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뿌리고 497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씨와 같은 혐의로 1사 전 대표 이모씨도 최근 구속했다. 이씨는 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또 다른 업체인 I사를 운영하면서 남씨와 함께 법원행정처 입찰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전자법정 입찰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는 8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승용차 상가 돌진 지난 2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진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단순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

# 경찰 '손석희 출석 일정 조율중...피해의자 신분'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 혐의를 내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손 대표 측으로부터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정확한 조사 날짜를 정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프리

랜서 기자 김모(49)씨도 손 대표를 조사한 뒤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 진술서를 받았다.

손 대표가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르면 이번 주 검찰로부터 경찰에 수사지휘가 내려올 전망이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폭행 사건과 병합해 수사를 계획이다.

/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손 대표를 피해의자 신분으로 내사 중이다.

한편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폭행사건이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했다는 김씨 주장과 관련해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 폭행 사건 합의해주지 않자 방화 기도

### 광주북부경찰, 5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한 서모(58)씨를 협주조동발방화죄에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박모(여·58)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박씨의 집 복도쪽 유리창을 깨고 깨진 틈 사이로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휘발유 20 l를 나눠 담은 페트병 10여개와 휴대용 부탄

가스 20개, 향기,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해 박씨의 집을 찾아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박씨는 의술 중이었으며, 집에 있던 박씨의 아들이 서씨의 라이터를 뺏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운영하는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던 서씨는 지난 3일 박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며 욕설과 함께 향기로 위협해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신고 당했다. 서씨는 박씨가 해당 사건의 합의를 거부하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서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기초수급비 받아 용돈 줬는데..." 술 마신 여친 때린 50대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신이 준 용돈으로 술을 마셨다"며 60대 여자친구를 폭행했다가 경찰서행.

○...2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B(61)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A씨는 수개월간 B

씨에게 30만원씩 용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지만 B씨는 "A씨와는 그냥 아는 사일 뿐 애인관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는데, A씨는 경찰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때마다 매달 30만원 가량을 B씨에게 건넸다. 받은 돈을 술값으로 쓴 B씨에게 화가 나 살짝 잡아당겼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임야

## 단독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Dankook!**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Seraok!**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1. 태양광발전소 사업 모집**
  - 태양광발전소 기공식 후원 (태양광 1000kw 이상)
  - 태양광발전소 기공식 후원 (태양광 1000kw 이상)
  - 태양광발전소 기공식 후원 (태양광 1000kw 이상)
-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선정 가능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한 보조금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한 보조금
- 3.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마스터급 영업사원
  - 태양광 마스터급 영업사원
  - 태양광 마스터급 영업사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	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담당부서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회
		신사업개발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라	코	수입영업	영업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공학계)	나
		세라믹 (영업/마케팅)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 영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처: 1명당 010-6834-7400, 010-6834-7400, 010-6834-7400, 010-6834-7400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